

# 헤르만 바빙크의 교회의 보편성 연구

---

**박진기**

(남서울교회, 부목사, 조직신학)

- I. 서론
- II. 바빙크의 교회 경험과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관심
- III. 바빙크의 교회의 보편성 이해
- IV. 교회의 보편성 이해에 있어서 비가시적 교회, 유기체적 교회 개념의 역할
- V. 결론

**[초록]**

이 논문은 19세기 신칼빈주의 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개혁파 교의학자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가 제시하는 ‘교회의 보편성’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이해에 기초하여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교회론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헤르만 바빙크는 1834년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분리(Afscheiding)운동의 중심이 된 가정에서 태어나 평생 동안 그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단지 분리측 사람으로만 머물지 않았고 1887년 일어난 애통(Doleantie)운동 이후에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와 더불어 교회 연합을 위해 힘썼다. 이처럼 바빙크가 교회 연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 최전선에서 분투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기독교의 보편성(우주성)에 기초한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이 주제에 관한 그의 이해는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과 『개혁교의학』에서 깊이 있게 드러나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가 제시하는 교회의 보편성 개념을 밀도있게 연구하고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비가시적 교회 사상을 잘 계승하고 있으며 또한 신칼빈주의에서 주목하는 유기체적 교회 사상과도 적절하게 연결된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결론으로서 교회의 보편성에 관한 바빙크의 이해가 한국 교회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는 교회론적인 문제의 핵심에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무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초대형교회들이 만들어낸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무비판적으로 모방하는 획일화를 넘어서 한국 교회가 다양성 속에 있는 통일성(unity in diversity)안에서 참된 교회의 보편성을 추구할 것은 제안한다.

**키워드:** 헤르만 바빙크, 신칼빈주의,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 개혁교의학, 비가시적 교회, 유기체로서의 교회

## 1. 서론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와 더불어 19세기 네덜란드 신칼빈주의 운동의 전개와 확산에 있어서 신학적 토대와 중추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다. 신칼빈주의 운동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개혁신교의 영적 유산을 현대 세계에 유익한 것으로 만들고자 했던 하나의 갱신 운동이었는데, 바빙크의 신학 저술은 이 운동의 정점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sup>1</sup> 따라서 바빙크의 저술을 통해서 개혁신교 교의학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데, 본 논문은 그의 교의학적 주제 중 교회론,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의 보편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개혁신교 교의학에서 제시하는 교회의 보편성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교회론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바빙크는 명실공히 ‘교회를 위한 신학자’라고 불릴 만하다. 그는 자신이 목양하는 성도와 교회를 사랑했고, 그 무엇보다 교회를 ‘신학함의 터전’이라고 여겼다.<sup>2</sup> 1895년에 출간된 『개혁신교의학』 초판 1권의 서문에서부터 그는 “교의학자는 오직 모든 성도와 함께할 때, 지각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 깊이와 높이를 깨달을 수 있으며 고백할 수 있다. 오직 그들과의 교제 안에서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이 선언하는 교리를 이해할 수 있다.”<sup>3</sup>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바빙크는 그의 교회론을 전개해 나갈 때 ‘보편성’이라는 개념을 항상 염두에 두었다. 바빙크는 그의 『개혁신교의학』 4권에서 총 3장을 할애하여 교회론을 전개하는데, 그 첫 장인 54장 ‘교회의 본질’에서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 다룬다. 바빙크에 따르면,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비록 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교부들의 성경해석(창 12:3; 시 2:8; 사 2:2; 렘 3:17; 말 1:11; 마 8:11, 28:19; 요 10:16; 롬 1:8, 10:18; 엡 2:14;

1 박태현, “헤르만 바빙크의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 『신학지남』 제84권 1집 제330호(2017), 113.

2 유해무, 『헤르만 바빙크, 보편성을 추구한 신학자』 (서울: 살림, 2004), 8.

3 헤르만 바빙크, 『개혁신교의학』 제1권, 박태현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54.

골 1:6; 계 7:9 등)에 따라 교회의 보편성을 기독교 보편성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먼저 기독교를 “모든 민족과 모든 세기, 모든 신분과 지위, 모든 장소와 시간이 적합하고 의도된 세계종교”<sup>4</sup>라고 정의했고, “이런 기독교의 국제적이고 전 세계적 성격을 가장 선명하게 그 고백서에 표현하고 실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교회의 보편성을 이룬다고 보았다.<sup>5</sup>

최근까지의 바빙크의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가 1888년에 발표한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sup>6</sup>에 대한 번역과 해설 그리고 비평에 관련되어 있거나,<sup>7</sup> 제임스 에글린턴 박사가 자신의 박사 논문을 통해 제기한 물음인 ‘유기적 관점에서 본 새로운 바빙크의 발견’이라는 지평 위에서 진행되었다.<sup>8</sup> 에글린턴의 제자들은 스승의 관점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바빙크의 보편성 개념을 소개하고 더욱 깊이 연구하고 있다.<sup>9</sup>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제적 연구들의 결과를

4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의학』 제4권, 박태현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383.

5 바빙크, 『개혁교의학』 4권, 383.

6 이는 1888년 12월 18일, 헤르만 바빙크가 캄펜신학교 학장직에서 사퇴하며 했던 퇴임 연설이다. 여기서 바빙크는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 성경적, 교회역사적, 신학적 근거를 대면서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 연설문은 다시금 80년 뒤에 해설이 붙여져서 다음과 같이 출판되었다. Herman Bavinck, *De katholiceit van christendom en kerk*, Ingeleid door drs. G. Puchinger (Kampen: J. H. Kok 1968[1888]); 이 강연의 영역은 다음을 참조하라. Herman Bavinck, “The Catholicity of Christianity and Church,” ed. John Bolt, *Calvin Theological Journal* 27(1992), 220-251.

7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박태현, “헤르만 바빙크의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 『신학지남』 제84권 1집 제330호(2017), 113-62; Barend Kamphuis, “Herman Bavinck on Catholicity,” *Mid-America Journal of Theology* 24(2013), 97-104; Herman Bavinck, “The Catholicity of Christianity and Church,” ed. John Bolt, *Calvin Theological Journal* 27(1992), 220-51; Hendrikus Berkhof, *De Katholiceit der kerk* (Nijkerk: G. F. Callenbach, 1962).

8 James Eglinton, *Trinity and Organism: Towards a New Reading of Herman Bavinck's Organic Motif* (New York: Bloomsbury T&T Clark, 2012).

9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하라. Ryan C. Fields, “Reformed and Catholic? Assessing Nevin and Bavinck as Resources for Reformed Catholicity,”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82, no.1(Spring 2020), 77-94; Nathaniel Gray Sutanto, “Confessional, International, and Cosmopolitan: Herman Bavinck's Neo-Calvinistic and Protestant Vision of the Catholicity of the Church,”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12, no.1(2018), 22-39; Cory Brock and Nathaniel Gray Sutanto, “Herman Bavinck's Reformed Eclecticism: On Catholicity, Consciousness, and Theological Epistemology,”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70, no.3(2017), 310-332.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바빙크의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이해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며,<sup>10</sup> 동시에 이것을 토대로 한국교회의 개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바빙크 자신의 교회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그에게 있어서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주제가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2장). 두 번째로, 바빙크가 말하는 교회의 보편성의 핵심에 ‘기독교의 보편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기독교의 보편성과 교회의 보편성의 관련성을 연구할 것이다(3장). 세 번째로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바빙크의 이해에 있어서 ‘비가시적 교회’, ‘유기체로서의 교회’ 개념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4장).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서 바빙크의 교회의 보편성 이해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주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고찰해볼 것이다.

## II. 바빙크의 교회 경험과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관심

### 1. 분리(Afscheiding)와 애통(Doleantie)의 합동을 추구한 신학자

바빙크는 1854년 12월 13일에 네덜란드의 호흐페인에서 안 바빙크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안 바빙크는 1534년에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일어난 ‘분리(Afscheiding)’운동 초창기에 중요한 인물 중 하나였는데, 그로 인해 바빙크도 그의 일평생 ‘분리측’이라고 불리는 뚜렷한 교회적 흐름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sup>11</sup>

바빙크가 평생 몸담았던 분리측 교회와 그들이 추구한 바를 제대로 이해하기

10 특별히 제임스 에글린턴과 그의 제자들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연구는 주로 교의학적이라기보다 역사신학적이며 철학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재은은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비평한다. “에글린턴의 이런 의도는 소위 바빙크 사상 내에 존재하는 ‘유기적 다양성’에 좀 더 집중하는 주장으로 기본적으로 바빙크를 ‘시대의 아들’로 설정해 바빙크 당대에 발흥했던 현대성(modernity)에 적극적으로 반응, 인식, 숙고, 전용하는 태도와 자세를 겸비했던 바빙크를 강조하는 입장견지이다.” 박재은, “제임스 에글린턴의 *Bavinck: A Critical Biography*에 대한 비평적 고찰”, 『개혁논총』 56(2021), 218.

11 론 글리슨, 『헤르만 바빙크 평전』, 윤석인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4), 15-45.

위해서는 도르트 총회와 그 이후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상황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도르트 총회는 1618-1619년 사이에 최소한 네 번의 총회를 연속적으로 가지며, 도르트 신조와 더불어 이후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교회법을 채택한다. 그러나 이 도르트 총회 이후 국가가 교회에 지나치게 깊이 관여하게 되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들은 단 한 번도 총회를 가지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교회의 독립성과 신앙고백적 통일성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834년에 더 콕(Hendrik De Cock, 1801-1842) 목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분리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분리 또는 복귀헌장'이라고 불린 문서에 서명한 교회들 혹은 목사들은 네덜란드 국가교회가 교리적, 신앙고백적 개혁교회에서 완전히 벗어났기에 거짓교회이며 그런 점에서 이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천명하며 분리측 교회를 형성했다.<sup>12</sup>

헤르만 바빙크는 이처럼 분리운동의 중심이 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평생 동안 그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씨름 속에서 살았다. 이러한 흔적이 바빙크의 교회론에서도 드러나는데, 신앙고백적 교회에 대한 강조와 성도의 경건성 그리고 내적인 면에 관한 관심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바빙크의 교회론을 깊이 연구해 보면, 그가 분리측 사람으로서만 머물지 않았고 오히려 교회 연합에 대한 열망을 가진 교의학자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 교회 연합에 대한 그의 신학적 관심과 교회적 열망을 불러일으킨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가 중심이 된 '애통(Doleantie)'이라는 또 다른 교회개혁 운동이었다.<sup>13</sup>

신학은 신앙을 기초로 하기에 국립대학에서 다루어질 이성의 작업인 '학문'이 될 수 없고 학문과 분리해서 실용학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네덜란드 고등교육법'에 반대한 카이퍼는 자유대학교를 설립하고<sup>14</sup>, 이어서 암스테르담 교회를 중심으로 '애통'이라고 불리는 교회의 자유를 추구하는 운동을 벌였다.<sup>15</sup> 그 후 1887년에 독자적인 교회를 형성한 '애통측'은 이미

12 김재운, "헤르만 바빙크의 교회론", 『장로교회와 신학』 10(2013), 146-148.

13 김재운, "헤르만 바빙크의 교회론", 148-149; 이상웅,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와 사상 개관 1", 『신학지남』 제80권 2집 제315호(2013), 197-227.

14 아브라함 카이퍼가 설립한 자유대학교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라. 박태현, "아브라함 카이퍼와 자유대학교", 『신학지남』 제82권 2집 제323호(2015), 177-200.

15 이상웅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와 사상 개관 1", 219: "이 '애통(Doleantie)' 운동은 카이퍼와

국가교회로 분립했던 분리측과 연합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는데, 당시 분리측의 신학교인 감뎨신학교의 학장으로 있었던 헤르만 바빙크는 두 교회의 연합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sup>16</sup>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바빙크는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연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는 교회의 보편성을 매우 강조하며 분리측과 애통측의 연합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이러한 바빙크의 교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의 교회론에서 교회의 보편성이 강조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그가 날 때부터 경험했던 분리와 카이퍼를 만난 이후 그가 추구했던 교회 연합이라는 주제가 그의 교회론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때문에 그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보편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 2. 신칼빈주의의 중추 역할을 감당했던 신학자

앞서도 언급했지만, 바빙크는 카이퍼와 더불어 신칼빈주의의 중추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다. 원래 “신칼빈주의”라는 말은 카이퍼의 반대파들이 그를 공격하기 위해 붙인 이름인데, 카이퍼는 노년기에 이 말을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사상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이나 칼빈주의자들의 사상과 너무 동일시되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이는 칼빈의 사상을 19세기 당대의 문제들과 연관시켜 발전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카이퍼는 바로 이런 식의 ‘현대화’를 신칼빈주의라 부르기를 제안했던 것이다.<sup>17</sup> 그런가 하면, 바빙크는 『네덜란드 칼빈주의의 미래』<sup>18</sup>에서 개혁주의와 칼빈주의를 비교하며 “칼빈주의”가 가지는 독특한 성격을 말하는데, 이때 그는

---

그의 추종자들이 벌인 운동으로서, 네덜란드 국가 교회 총회가 1880년과 1883년에 내린 결정, 즉 신임목회자들의 개인적인 신앙이 복음적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지 말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정에 애통해하는 운동이다. Doleantie라는 말은 라틴어 Dolero(애통해하다)에서 비롯되었다.”

16 클리슨, 『헤르만 바빙크 평전』, 155.

17 유해무, “신칼빈주의 운동”, 『신학지평』 제8집(1998), 232.

18 Herman Bavinck, “The Future of Calvinism,” trans. Gehardus Vos,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Review*, No.17(1894), 1-24.

카이퍼가 제안하는 신칼빈주의와 동일한 맥락에서 칼빈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개혁주의와 칼빈주의는 그 기원에서 같은 의미이지만, 결코 동등하지 않으며 전자는 후자보다 더 제한적이고 덜 포괄적이다. 개혁주의는 단지 종교적이고 교회적인 구분만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순전히 신학적 개념이다. 칼빈주의라는 용어는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정치, 사회 및 시민 영역에서 특정한 유형을 나타낸다. 그것은 프랑스 개혁가의 강력한 정신에서 태어난 삶과 세계 전체에 대한 특징적인 견해를 나타낸다. 칼빈주의자는 개혁주의 기독교인의 이름인데, 그는 교회와 신학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치 생활과 과학과 예술에 있어서 특별한 모습과 뚜렷한 성격을 드러낸다.”<sup>19</sup>

신칼빈주의가 가지는 이러한 포괄성 때문에, 바빙크는 교회와 신조에 대해서도 매우 융통성 있고 유연한 입장을 가진다. 그는 같은 글에서 루터교와 칼빈주의를 비교하며, 루터교는 단 하나의 교회와 하나의 신앙고백을 낳았지만 칼빈주의는 많은 나라에 진출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또한 많은 신앙고백서를 만들어 냈다는 것을 강조한다. “칼빈주의는 세계를 포괄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상의 의미에서 보편적이다.”<sup>20</sup> 하링크(George Harinck)는 바빙크의 이런 진술에서 그가 자신을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개방성을 지닌 근대인(a modern man)으로 드러냈다고 평가했다.<sup>21</sup> 하링크의 이러한 주장은 현대의 학자들이 제기하는 “두 바빙크들(two Bavincks)” 이론의 일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론은 ‘근대적(modern) 바빙크’와 ‘정통적인(orthodox) 바빙크’를 대조시킨다. 이는 바빙크의 작품 중 근대주의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정통주의적 성격을 띠는 것이 있어서 마치 다른 두 사람의 글로 읽힌다는 주장이

19 Bavinck, “The Future of Calvinism”(1894), 3

20 Bavinck, “The Future of Calvinism”(1894), 6.

21 George Harinck, “Calvinism Isn’t the Only Truth: Herman Bavinck’s Impressions of the USA,” *The Sesquicentennial of Dutch Immigration: 150 Years of Ethnic Heritage: Proceedings of the 11th Bienni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Dutch American Studies*, ed. Larry J. Wagenaar and Robert P. Swierenga (Holland: The Joint Archives of Holland, Hope College, 1998), 154.



다.<sup>22</sup> 하지만, 바빙크가 말하는 이 보편성은 그가 근대인으로서 가지는 상대주의에 대한 낙천적인 입장의 결과물이 아니라,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유기체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수탄토(Nathaniel Gray Sutanto)는 “바빙크는 보편성은 다양성 안에서의 유기체적 일치의 형태를 취한다고 주장했다. 일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적인 유대와 성령 안에서의 교통에 있다. 다양성은 교회가 존재하는 다양한 맥락에서 나타나는 신앙고백적 복수성에 있다.”고 아주 적절하게 평가한다.<sup>23</sup> 다음 장에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지만, 바빙크는 기독교를 이해할 때 단지 신학적 차원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에서 그것을 다루었으며, 그러므로 교회는 이 우주적 기독교를 담지하는 기관으로서 합당한 삼위일체적이며 유기체적인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 III. 바빙크의 교회의 보편성 이해

#### 1. 기독교의 보편성과 교회의 보편성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바빙크의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연설은 연구하고자 하는데, 이 연설은 기독교의 공교회성에 대한 고백이 갖는 중대한 의의와 그 원리적 적용을 밝히 드러낸 매우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sup>24</sup> 이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바빙크는 그 서문에서 교부들이 사용했던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한다. 먼저 교부들은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말을 통해 교회가 ‘통일된 전체’라는 것을 표현했다. 다음으로 교부들은 이 보편성이라는 단어로 교회는 ‘모든 세대, 모든 지역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총합’이라는 것을 묘사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 단어를 사용하여 교회는 ‘죄 용서와

22 Eglinton, *Trinity and Organism*, 27-28.

23 Sutanto, “Confessional, International, and Cosmopolitan”(2018), 34-35.

24 박태현, “헤르만 바빙크의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 115.

일생에 걸친 개혁을 모두 아우른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바빙크는 이 연설에서 총 3장에 걸쳐 세 가지 주제를 핵심적으로 다룬다.

1장에서 그는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에 관하여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주목하는데, 여기서는 신구약 성경 안에서 -특히 초기 기독교 교회 안에서- 기독교의 절대적 우주성과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바빙크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한 민족을 특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 통치의 비밀을 밝혀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보편주의적 핵심은 여전히 자신이 포함된 특정주의의 껍질을 깨뜨릴 것이다."<sup>25</sup> 이렇게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통해 예언된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인 통치는 "하나님이 세상(cosmos)을 사랑하사 그 세상을 만든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사건"<sup>26</sup> 즉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을 위한 죄 용서뿐 아니라 만물을 위한 화해와 통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 지점에서 바빙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만물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성경의 진술들<sup>27</sup>이 '기독교의 절대적 우주성'을 가장 강력하고 아름답게 선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빙크가 말하는 기독교의 절대적 우주성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통치'와 같은 말임을 알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의 보편적인 통치는 오순절에 태동한 '고유한 독립적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정으로 보편적이며, 미래의 상속자이며, 모든 피조물이 누릴 기쁨의 선포자"<sup>28</sup>인 교회를 통해서 "민족, 장소, 시간을 초월하여" 실행된다.<sup>29</sup> 그러므로 교회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복음의 상속자요 선포자로서 보편성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보편성은 초기교회 이단과 분파들의 등장으로 인해

25 Bavinck, "The Catholicity of Christianity and Church"(1992), 223.

26 Bavinck, "The Catholicity of Christianity and Church"(1992), 223.

27 바빙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만물의 화해와 통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성경의 본문을 인용한다. 고후 5:19; 요 3:16, 17, 12:47; 요 1:9; 요 6:33; 요일 4:14; 골 1:20; 엡 1:10; 요 1:3; 골 1:16; 히1:2; 계 11:15; 벧후 3:13.

28 Bavinck, "The Catholicity of Christianity and Church"(1992), 225.

29 Bavinck, "The Catholicity of Christianity and Church"(1992), 227.

곧 심각한 시험을 받는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까지 확장되면서 “교회의 보편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십자가의 보편적 가치,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는 이신칭의에 관해” 심각한 투쟁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sup>30</sup> 하지만 거짓 형제들의 배타주의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통일성과 보편성을 결코 이길 수 없었고, 그로 인해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사도 시대 이후에도 교회는 분리주의와 이단에 의해 계속해서 다양한 위협을 받았고 이런 위협으로부터 교회의 보편성을 지켜야 했다. 그래서 교회는 ‘권징’ 곧 교회적 징계를 시행하여 교리의 통일성과 교회의 통일성을 지키고자 했는데, 바빙크는 “권징은 교회의 권리라기보다는 엄숙한 의무”이며, “권징 가운데 교회의 거룩함이 드러나며,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보편성도 드러난다.”고 정리했다.<sup>31</sup> 캄프화이스(Barend Kamphuis)는 이와 관련해서 “권징을 유지하는 것은 교회의 보편성과 아무런 갈등을 일으킬 수 없다는 바빙크의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아주 정당하게 평가한다. 계속해서 그는 교회 권징은 죄인을 공동체로 불러들이고 교회의 보편성을 지키기 위한 교회의 진지한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sup>32</sup> 여기서 우리는 바빙크가 말하는 보편성이 단지 죽대 없는 담허물기가 아니라, 분명한 복음적인 기준과 목표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임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2장에서 바빙크는 교회사를 통해 ‘교회는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에 대해 고찰하며 속사도 시대 이후 교회의 보편성 교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핀다. 2~3세기에는 이원론과 금욕주의가 만연했고,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었기에 몬타누스주의, 노바티안주의 등의 분리 운동들이 일어났다. 그러나 교회는 금욕과 분리주의 길에 서기를 원하지 않았고, 세상과 교회 사이에 존재했던 질적인 대립을 양적인 대립으로 바꾸었다. 바빙크는 이처럼 성속의 대립을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도덕적 계명들과 복음적 조건들 사이의 대립’으로 이해한 것이 로마교 세계관의 토대가 되었다고 보았다. “(로마교에서) 자연적인 것은 죄악된 것이 아니고, 그 성격상 초자연적인 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30 Bavinck, “The Catholicity of Christianity and Church”(1992), 225.

31 Bavinck, “The Catholicity of Christianity and Church”(1992), 227-228.

32 Kamphuis, “Herman Bavinck on Catholicity”(2013), 98.

것이다. 초자연적인 것은 ‘추가된 선물(*donum superadditum*)’이다.”<sup>33</sup> 이는 초월적 은혜가 자연의 결핍을 보충하여 완성한다는 이원론적 견해인데, 이로써 로마교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게 하는 기독교 원리의 참된 보편성을 변질시켜 버렸다. 로마교에 의하면, 기독교는 곧 교회이며, 교회는 모든 계층의 꼭대기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보편성은 기독교가 온 세상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교회에 복종시키는 것”<sup>34</sup>을 통해서 유지된다. 보편성에 대한 이런 로마교의 이해는 ‘계급적 서열을 지닌 교회’를 필요로 했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Extra ecclesiam, nulla salus*)”<sup>35</sup>는 교부들의 확신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도록 했다.

그런가 하면 바빙크는 종교개혁을 “기독교 자체에 대한 (로마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견해”<sup>36</sup>라고 평가한다. 자연과 은혜에 대한 이원론적인 로마교의 양적 대조에 반하여, 종교개혁자들은 이 대조를 참된 의미의 ‘질적인 대조’로 대체했다.<sup>37</sup> 이들은 또한 로마교의 기독교와 교회의 동일시를 내던졌고, 성경적 의미에서의 ‘세상적 기독교’를 설립했다.<sup>38</sup> 종교개혁은 보편적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항목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명예를 다시금 회복하였고, 이를 통해서 자연적인 것의 권리를 다시금 발견하고 회복시켰다.<sup>39</sup> 결론적으로 바빙크는 종교개혁이 단순한 교회 개혁이 아니라 로마교의 왜곡된 이원론을 극복하고 교회의 보편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것이라고 바르게 판단했다. 하지만 바빙크는 종교개혁자들의 이러한 교회관이 매우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질문을 낳았다고 지적한다. 그 질문은 “교회의 보편성을 보존하는

33 Bavinck, “The Catholicity of Christianity and Church”(1992), 229.

34 Bavinck, “The Catholicity of Christianity and Church”(1992), 231.

35 이 말은 키프리아누스와 히에로니무스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의 공통적인 확신이었다. Bavinck, “The Catholicity of Christianity and Church”(1992), 232.

36 Bavinck, “The Catholicity of Christianity and Church”(1992), 235.

37 종교개혁자들은 자연과 은혜의 관계를 창조와 재창조의 관계로 바르게 이해했다. 종교개혁자들의 이러한 이해에 대한 바빙크의 견해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헤르만 바빙크, 『헤르만 바빙크의 일반은총』, 박하림 역 (서울: 다함, 2021).

38 바빙크는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홀츠만(Holtzman)의 견해라고 소개하는데, 홀츠만(Heinrich Julius Holtzman, 1832-1910)은 독일의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자이다. Bavinck, “The Catholicity of Christianity and Church”(1992), 236.

39 Bavinck, “The Catholicity of Christianity and Church”(1992), 236.

동시에 진리에 대한 완벽한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이다.<sup>40</sup> 바빙크는 개신교가 이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기 위해 두 가지 노력을 하였다. 고 정리하는데, 첫째는 넓은 마음으로 관대하게 자신과 나란히 다른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정한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모든 기독교회를 그리스 교회와 로마교회, 재세례파와 항변파의 세례를 그리스도의 세례로 인정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들은 또한 분리의 정당화를 막기 위해서 근본적인 신조들과 비근본적인 신조들을 구분했다.<sup>41</sup> 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교개혁자들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이단’이라는 용어는 오직 근본적인 신앙 조항들에 대한 완고한 오류에만 적용되었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에 적대적인 로마교와는 달리 원리적으로 양심에 대한 모든 폭력과 속박을 반대하며 그러므로 종교재판도 반대했다.

수탄토는 이 지점이 바빙크의 유기체론을 언급하기에 가장 적절한 부분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지금 바빙크가 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두 가지는 모두 기계적 방식의 구분을 지양하고 유기체적인 방식을 따르기 때문이다.<sup>42</sup> 이처럼 바빙크는 유기체적 접근을 통해 로마교의 이원론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 각각이 가진 독특한 색채를 유연하게 어우르며 개신교 내 분열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한다. 수탄토에 따르면 바빙크가 기계적 구분을 유기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그들 각각의 출현에 이바지한 역사적, 문화적, 현세적, 맥락적 특징을 존중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단일하고 다양한 형태의 신조가 서로 다른 그림자를 제공한다고 보는 것”이다.<sup>43</sup> 이러한 수탄토의 이해는 바빙크가 그의 저서 『네덜란드 칼빈주의의 미래』에서 칼빈주의의 장점으로 꼽은바 “다양한

40 Bavinck, “The Catholicity of Christianity and Church”(1992), 236: “How is it possible to preserve the catholicity of the church and at the same time maintain the full character of truth?”

41 여기서 바빙크는 『기독교강요』 4권 1장 1절, 12절, 13절 그리고 2장 1절을 인용한다. Bavinck, “The Catholicity of Christianity and Church”(1992), 236. 각주 18 참고; 칼빈은 “믿음에 본질적이지 않는 교리 조목들에 대해서는 건덕에 힘쓰되 그것들의 불화가 교회를 포기하거나 분열시킬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존 칼빈, 『1559년 라틴어 최종판 직역 기독교 강요 4』, 문명호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0), 64 참고.

42 Sutanto, “Confessional, International, and Cosmopolitan”(2018), 29.

43 Sutanto, “Confessional, International, and Cosmopolitan”(2018), 30.

사소한 그림자를 허용하고 그것의 신학적, 교회적 원칙의 적용에서 모든 기계적 균일성을 피하는 것”을 참고한 것임이 틀림없다.<sup>44</sup> 따라서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바빙크의 유기체적인 이해는 신칼빈주의가 가지는 융통성과 유연성을 가장 잘 활용한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 바빙크는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가?’라는 질문 아래에서, 종교개혁 이후 교회의 분열을 조장했던 로마 가톨릭의 ‘예수회주의’와 개신교의 ‘경건주의’를 비판했다. 먼저, 예수회는 반개신교적인 모든 것의 체현과 대표로서 종교개혁의 일을 파괴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은 집단으로서, 마리아의 무흠 잉태 선언과 교황의 무류성 선언을 이끌었다. 그런가 하면, 개신교의 경건주의는 종교개혁 이후에도 삶의 기독교화를 거의 이루지 못한 것의 반작용으로 발생했다. 바빙크는 로마교회의 예수회주의는 ‘빛을 부정하는 것’으로, 개신교회의 경건주의는 ‘세상을 부정하는 것’으로 정의했고, 그러므로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 죄를 지었다고 평가했다.<sup>45</sup> 그리고 무엇보다 바빙크는 종교개혁 이후에 문화와 기술, 학문과 인생관에 있어서 기독교와 기독교적 가르침이 더 이상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분위기에 맞닥뜨리자 예수회는 복고를 부르짖었고 경건주의는 고독을 선택했다고 보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결코 삶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지 못하는 ‘게릴라식 전투’로서 교회의 보편성과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에 대해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복이 아니라 분열’을 야기한다고 평가했다.<sup>46</sup> 그러므로 바빙크는 교회의 분열, 곧 교회로부터의 분리를 야기하는 분파주의에 빠지는 것은 심각한 죄임을 지적하는 동시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적인 입장을 취하고 고립되는 것도 경계했다. 특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거부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스로 고독에 잠길 때보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큰 믿음임을 가르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44 Bavinck, “The Future of Calvinism”(1894), 22.

45 Bavinck, “The Catholicity of Christianity and Church”(1992), 243.

46 Bavinck, “The Catholicity of Christianity and Church”(1992), 246-247.

“더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은 … 세상 한 가운데서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보존하기에 능하신 분으로 확신하면서 누룩처럼 세상 속에 들어가는 자이다. … 믿음은 모든 상황에 들어갈 수 있으며, 모든 자연적 삶의 형태에 결합될 수 있고, 모든 시대에 적합하고, 모든 것에 유익하며, 모든 환경에 적절한 것이다. 믿음은 자유롭고 독립적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오직 죄와만 싸우기 때문이며, 십자가 보혈 안에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sup>47</sup>

이 때문에 바빙크는 역설적으로 ‘개신교회의 분열’이 기독교에 오로지 부정적인 증거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독교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기독교가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의 권세이며, 기독교가 수천의 사람들 마음에 관련된 중대사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고 말한다. “신앙고백적인 분열 위에 있는 보편적 기독교는 없다. 보편적인 기독교는 다만 그 분열 안에 존재할 뿐이다.”<sup>48</sup> 이러한 바빙크의 주장은 어떤 신학자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이중적이고 모호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교회 현장에서 이미 발생한 분열이라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교의학자의 몸부림이다. 그리고 그 몸부림의 결과로서 그는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의 관계 속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했다. 바빙크는 교회의 보편성의 훼손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분열 현상을 기독교의 보편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한다. 그에 따르면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기독교의 보편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개교회가 각자 처한 독특한 상황이나 여건, 환경에 적응할 때에 교회의 분열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교회의 보편성의 원천이 되는 기독교의 보편성이 지켜지는 상황이므로 오히려 교회의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의 1~3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연설에서 드러나는 바빙크의 핵심적인 사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의 보편성은 기독교의 보편성 혹은 우주성을 전제한다.”는 것이다.<sup>49</sup> 여기서 바빙크가 말하는

47 Bavinck, “The Catholicity of Christianity and Church”(1992), 248-249.

48 Bavinck, “The Catholicity of Christianity and Church”(1992), 250.

49 Brock and Sutanto, “Herman Bavinck’s Reformed Eclecticism”(2017), 314.

기독교의 우주성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수립하신 것 외에 다른 경계 -예컨대 인종, 나이, 신분, 계급, 국적, 언어의 경계- 를 뛰어넘는 것이고, 개인만 아니라 피조계 전체 곧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인 복음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의 우주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이 되어 한 몸 된 그리스도의 영적 지체로서의 교회가 가지는 보편성 곧 민족과 장소, 시간을 초월한 하나로서의 교회의 보편성을 지지한다.<sup>50</sup>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완성하는데, 이와 관련해 바빙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하나의 교회가 아무리 순수하다고 해도 그것이 보편 교회와 동일시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한 신앙고백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낸다고 해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체와 동일시 될 수는 없다. 어떤 분파가 자신만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이며 오직 자신만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말라 죽게 될 것이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의 거룩한 보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sup>51</sup>

## 2. 개혁교의학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에서 뿐 아니라, 그가 1928~1930년에 저술한 『개혁교의학』<sup>52</sup>에도 교회의 보편성이 기독교의 보편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바빙크의 견해는 잘 드러난다. 개혁교의학 전체에서 바빙크는 교회의 보편성의 토대

50 Bavinck, “The Catholicity of Christianity and Church”(1992), 227: “They were one in baptism, faith, and hope, one as members of the same body with various gifts designed for each other and for the perfection of the saints. This unity was a oneness arising encompassing many nations, all places and all times.”

51 Bavinck, “The Catholicity of Christianity and Church”(1992), 250-251.

52 Herman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sup>4</sup>, (Kampen, 1928-30). 영역본은 다음을 참고하라.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ed. John Bolt, trans. John Vriend, 4 volumes (Grand Rapids: Baker, 2003-2008), 한역본은 다음을 참고하라.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의학』 전4권, 박태현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가 되는 기독교의 보편성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먼저 1권과 3권에서 나타나는 기독교의 보편성 개념을 간략하게 정리한 후에,<sup>53</sup> 교회를 다룬 4권의 내용을 토대로 기독교의 보편성과 교회의 보편성이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를 살펴보겠다.

가장 먼저 1권 9장에서 ‘계시의 본질과 개념’을 다룰 때에 바빙크는 맨 첫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종교의 본질과 기원에 대한 연구 자체는 계시에도달하고, 종교 역사는 계시 개념이 단지 기독교와 성경에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필수적으로 상관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sup>54</sup> 이러한 말로 바빙크는 모든 종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포하므로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로 인해 그는 “모든 종교는 계시 즉 인간을 위한 신의 의식적, 자발적, 의도적 알림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다.”<sup>55</sup>는 광범위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바빙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이런 주장을 좀 더 구체화 시키는데, 그는 “모든 종교는 구원종교이며, 모든 종교적 교리는 구원 교리”라는 티일러의 주장을 소개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오직 계시로부터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계시는 반드시 종교의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sup>56</sup> 캄프화이스에 따르면, 이 지점에서 바빙크가 말하는 ‘기독교의 보편성’ 개념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기독교만이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구원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기독교는 단순히 종파적 교리가 아니며 일반 사람은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모든 사람의 열망 곧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혼과 몸의 구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sup>57</sup> 캄프화이스의 이런 이해는 매우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를 “나라와 민족, 지역과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를 다스리고 모든 피조물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세계종교”로 이해하는 바빙크의 보편성 이해와 부합하기 때문이다.<sup>58</sup>

53 캄프화이스는 바빙크의 개혁신학의 1권과 3권에 드러나는 기독교의 보편성 개념을 매우 잘 정리했다. Kamphuis, “Herman Bavinck of catholicity”(2013), 100-102.

54 바빙크, 『개혁신학』 제1권, 395.

55 바빙크, 『개혁신학』 제1권, 396.

56 바빙크, 『개혁신학』 제1권, 396.

57 Kamphuis, “Herman Bavinck on Catholicity”(2013), 101.

그런가 하면, 기독교의 보편성에 대한 바빙크의 이해는 『개혁신교의학』 3권 46장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다룰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예수님의 증보자 신분에 대하여 “단지 성경만 이러한 증보자 신분의 교리를 지닌 것이 아니라, 증보자 신분이 모든 민족 종교에서 등장한다는 생각에 의해 성경은 사방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확증된다.”고 말한다. 이는 증보자에 대한 열망이 단지 기독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열방의 수많은 종교에서 발견되기 때문인데,<sup>59</sup> 여기서 바빙크는 많은 역사적인 종교들을 실제로 언급하면서 그 종교에 나타난 증보자 사상을 열거한다.<sup>60</sup>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결론에 이른다. “우리는 근거 없이 이교도의 ‘무의식적 예언’을 언급할 수 없다. 이것의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표현들은 기독교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이스라엘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학개 2장 7절의 네덜란드어 번역에서 표현되었듯, ‘만국의 사모하는 분’이기도 하다.”<sup>61</sup> 이 결론에서도, 계시에 대한 바빙크의 이해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그가 가진 기독교의 보편성에 대한 신념을 발견할 수 있다. 바빙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과 온 인류를 위한 절대적 우주성을 가진다고 확신했다.<sup>62</sup> 이뿐 아니라,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참되고 완전한 인성’에 대해 이해할 때에도 이 기독교의 보편성 개념을 논리적 비판으로 삼았다. “만일 그리스도의 인성 가운데 하나의 본질적인 요소가 하나님과의 참된 일치와 교제에서 배제된다면, … 이런 경우 영원한 물질이 존재한다. … 이런 경우 기독교는 참으로 보편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취해질 수 없는 것은 치료될 수 없기 때문이다.”<sup>63</sup>

58 Bavinck, “The Catholicity of Christianity and Church”(1992), 221.

59 헤르만 바빙크, 『개혁신교의학』 제3권, 박태현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285: “단지 성경만 이러한 증보자 신분의 교리를 지닌 것이 아니라, 증보자 신분이 모든 민족 종교에서 등장한다는 생각에 의해 성경은 사방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확증된다.”

60 바빙크, 『개혁신교의학』 제3권, 286.

61 바빙크, 『개혁신교의학』 제3권, 288: “여기서 이 번역이 그릇된 것일 수도 있는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국의 사모하는 분’이라는 칭호 가운데 담긴 사상은 전적으로 성경적이다.”

62 Bavinck, “The Catholicity of Christianity and Church”(1992), 224: “The Gospel is a joyful tidings, not only for the individual person but also for humanity, for the family, for society, for the state, for art and science, for the entire cosmos, for the whole groaning creation.”

63 바빙크, 『개혁신교의학』 제3권, 365.

마지막으로, 교회를 다룬 『개혁교의학』 4권의 내용을 토대로 기독교의 보편성과 교회의 보편성이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를 한 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는 54장에서 ‘교회의 본질’을 다루면서, 지역교회와 보편교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기준점으로 ‘기독교의 보편성’을 제시한다. 그는 “보편 교회가 지역교회에 선행한다는 주장은 물론 역사적으로 앞서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앞선다는 점에서 옳다. 지역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인데,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 지역에서 보편교회와 동일하며,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대해 갖는 관계는 그리스도가 보편 교회에 대해 갖는 관계와 같기 때문이다.”<sup>64</sup>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 갖는 관계에 대해 주목한다. 그렇다면, 바빙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에 게 있어서 교회는, 신약성경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 신부, 총만이다.<sup>65</sup> 바빙크는 항상 이러한 이해로부터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 개념을 도출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분보다 전체가 우선하는 유기체”이며,<sup>66</sup> “가장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모임으로 단지 지상의 모임만이 아니라 하늘의 모임도, 단지 과거와 현재의 모임만이 아니라, 미래의 모임도 포함한다.”<sup>67</sup>

결론적으로 바빙크는 성경의 계시에 근거해서 ‘보편성’ 개념을 교회 자체에 제한되는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매우 광범위한 것임을 포착했다. 즉 그는 신학의 원리로 기독교의 보편성을 채택했고, 그 기독교의 보편성의 원리로 교회를 이해했다. 따라서 그는 로마교와 달리 교회를 가시적이며 외형적 혹은 물량적으로 이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모든 참된 신자를 포함하고 다양한 교회들에서 다소 순수하게 드러나는 보편적 교회, 또는 구약 교회와는 구별되는 지상의 모든 민족들과 장소들을 위한 신약 교회로 이해했다.

64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의학』 제4권, 박태현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329-330.

65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신부, 총만이라는 사실을 지지하는 성구로 바빙크는 롬 12:5; 고전 12:12-28; 갈 1:13; 빌 3:6; 엡 1:22, 5:32; 골 1:18, 24, 25을 제시하고 있다.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의학』 제4권, 329.

66 바빙크, 『개혁교의학』 제4권, 329.

67 바빙크, 『개혁교의학』 제4권, 330.

#### IV. 교회의 보편성 이해에 있어서 비가시적 교회, 유기체적 교회 개념의 역할

앞서 살펴본 바대로 교회의 보편성은 기독교의 보편성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시대와 민족, 장소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이며 비가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적으로 비가시적인 것만은 아닌데, 이는 교회가 기독교의 보편성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가시적인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편적 교회의 가시적 측면은 바빙크의 유기체적 교회 개념 안에서 매우 설득력 있게 전개된다. 이 IV장에서는 바빙크의 교회론에서 그의 보편성 개념이 종교개혁의 전통에 뿌리를 둔 교회 구분인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 사상을 이해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고, 이 사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전시켰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의 구분에 대한 바빙크의 이해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은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 바빙크는 교회를 구분함에 있어서 그 범위에 따라 보편교회, 국가교회, 지역교회로 구분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따라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로 구분했다. 그는 이러한 구분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제이베르크(Seeberg)의 견해에 동의했고,<sup>68</sup> 루터가 그리했던 것처럼 이 구분을 하나이며 동일한 교회의 두 측면으로 이해했다.<sup>69</sup> 따라서 바빙크에게 있어서 가시적, 비가시적 교회는 플라톤적 이원론을 따르는 구분이 아니라,<sup>70</sup> 오히려 교회의 보편성에 근거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이 두 교회를 구분할 때, “동일한 신자들이 한편으로 마음속에 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확실히 알려진 믿음의 측면에서 고려될 때 비가시적 교회이며,

68 벨코프 또한 루터가 처음으로 가시적/비가시적 교회를 구분하였고, 다른 종교개혁자들도 이것을 인정하고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확히 누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는지는 확실치가 않다.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96: 재판), 565.

69 바빙크, 『개혁교의학』 제4권, 338, 362.

70 바빙크, 『개혁교의학』 제4권, 344-45.

우리에게 향하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고백과 삶의 측면에서 고려되기에 가시적 교회”라고 이해했다.<sup>71</sup> 이처럼 바빙크는 가시적, 비가시적 교회에 대한 루터의 구분을 전반적으로 지지했지만, 개혁파와 루터파의 차이점을 언급하면서 두 교회를 구분함에 있어서 개혁파가 가지는 독특한 관점이 소개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비가시적 교회에 대한 개혁파의 이해를 교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설명한다.

### 1. 교회의 보편성과 비가시적 교회

바빙크는 개혁파가 가지는 비가시적 교회에 대한 이해를 루터파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두 가지로 정리한다.<sup>72</sup> 첫째로, 개혁파와 루터파 간에 제도적 교회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름을 지적한다. 바빙크에 따르면, 루터파는 교회를 ‘성도들의 교제’라고 정의하면서도 교회의 통일성과 거룩성을 직분과 말씀과 성사라는 보다 객관적인 기관들에서 찾았다. 그에 반해, 개혁파는 하나님께서 보통 그리스도의 유익들을 말씀과 성사의 수단을 통해 주시지만 매우 드물게 제도적 교회와 상관없이 구원을 베푸는다고 보았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빙크는 개혁파가 교회를 선택과 매우 긴밀하게 연관시켰고, 따라서 교회의 비가시성을 루터파와 자주 다르게 이해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츠빙글리의 예를 들면서, 루터파가 처음에는 비가시성을 보편적 교회에 적용했지만 나중에는 비가시적 교회를 사도신경에 고백된 것처럼 믿음의 대상이며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처럼 선택된 자들의 모임으로 이해했다고 지적했다.<sup>73</sup> 하지만 개혁파는 이와 다르게 비가시적 교회를 ‘선택’과 긴밀하게 연관시켰는데, 바빙크는 먼저 칼빈이 1543년에 출판한 『기독교강요』 라틴어 개정판(3판)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가 이 비가시적 교회라는 용어를 오직 하나님에게만 알려진 선택

71 바빙크, 『개혁교의학』 제4권, 362.

72 바빙크, 『개혁교의학』 제4권, 339-40.

73 바빙크, 『개혁교의학』 제4권, 340: “츠빙글리는 『기독교 신앙 해설』(*Christianae fidei exposition*, 1531)에서는 또 다시 약간 다르게 말하기를 신자들의 교회는 지상에서 단지 참된 신자들만을 포함하는 한 비가시적이며, 세상에 걸쳐 그리스도에게 가입한 모든 사람이 이 교회에 속하는 한 가시적이다.”

된 자들의 모임으로 이해했고, 또한 교회를 가시적이고 위선자들도 포함하지만 동시에 비가시적이고 믿음의 대상인 “세상에 퍼진 보편적인 군중들”로 특징지었음에 주목했다.<sup>74</sup> 바빙크는 이런 칼빈의 견해를 따라 (1)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보편적 교회’, (2)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비로소 완성되고 나타날 ‘택자들의 모임’ (3) 위선자들이 포함된 지상의 교회 안에 있는 참된 신자들로서 ‘부름 받은 택자들의 모임’을 비가시적 교회라고 정리했다.<sup>75</sup>

바빙크는 칼빈에게서 비롯된 이 세 가지 점을 토대로 삼고 종합적-발생론적 방법(genetic-synthetic method)<sup>76</sup>으로 자신의 비가시적 교회 사상을 발전시킨다. 그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과 ‘성도들의 교제’라는 점에서 비가시적이라고 말하는데, 이 속에는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그의 이해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 먼저, 그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선택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 실현된 것인데,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고 의롭다 하고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거룩과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내적이고 영적인 속성을 지니게 되는데,<sup>77</sup> 그 영적인 속성에 따라 교회는 결코 제도적인 면에만 머무를 수 없고 지역과 시대, 인종에 갇힐 수가 없는 ‘보편적 교회’이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복음의 절대적 우주성을 담지한 기관으로 나타나는데, 따라서 교회는 직분과 제도를 강조하는 기계적인 획일성을 보편성으로 오해하는 로마교와 여전히 제도적 교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루터교와는 달리,<sup>78</sup> 기독교의 보편성을 토대

74 John Calvin, *Institutiones Religionis Christianae*<sup>5</sup>, IV, I, 1-9. 바빙크, 『개혁교의학』 4권, 340에서 재인용

75 바빙크, 『개혁교의학』 제4권, 340-41.

76 이 종합적-발생론적 방법은 바빙크가 그의 개혁교의학 1권 3장에서 제시하는 교의학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은 근원(성경)에서 강(교의)으로 뻗어나가는 방식인데, 성경에서부터 교인들의 발생을 추적하고 재해석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개혁교의학의 한역본에는 이를 “종합적, 유전적 방법”이라고 번역했지만, 어감과 의미상 ‘유전적’이라는 말보다는 ‘발생론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 바빙크, 『개혁교의학』 제1권, 105-45 참고.

77 바빙크, 『개혁교의학』 제4권, 352.

78 바빙크, 『개혁교의학』 제4권, 347: “루터파 가운데조차 많은 고백 교회들이 교회의 객관적 제도, 직분과 성사로 돌아가 여기에 모든 은혜의 전달을 연계시켰다.”

로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더 포괄적이고 유연함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바빙크는 교회를 '성도의 교제'라고 보았는데, 신자들은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모든 자들의 한 하나님과 아버지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한 영"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회를 성도의 교제라고 정의하면 그 안에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령의 교통으로 말미암은 통일성이 확보된다. 여기서 바빙크가 말하는 통일성은 로마교가 말하는 교회의 속성으로서의 통일성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다양성 속에 있는 통일성(unity in diversity)을 의미한다.<sup>79</sup> 다양성 속에 있는 통일성은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sup>80</sup> 하지만 이뿐 아니라, 이 통일성은 모든 교회,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현존하는 모든 신자들 곧 '보편적 교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유용하다.<sup>81</sup> 이 보편적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또는 장차 구원받게 될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sup>82</sup>

결론적으로, 바빙크가 말하는 비가시적 교회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과 성령의 교통 안에서 이해되는 교회의 영적인 측면이다. 그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의 구별은 단지 전투적 교회에만 적용되고, 따라서 교회의 그 영적인 측면에 따라 또는 교회의 참된 회원들 안에서 비가시적이라는 것을 가리킨다."고 이해했다. 그리고 이 비가시적 교회는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 개념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데, 비가시적 교회에서 보편성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신자들의 모임'이라는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교회의 보편성과 교회의 비가시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가시적 교회를 보편성에 근거하여 바르게 이해할 때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의 균형 잡힌 구분을 견지할 수 있고, 그 결과 다른 분파가 걸었던 길, 곧 "이원론적인 분리주의로 치우치는 길"<sup>83</sup>을 걷지 않을 수 있게 된다.

79 바빙크, 『개혁교의학』 제4권, 353: "이 성령은 통일성 가운데 신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성을 견지하고 확정한다."

80 바빙크, 『개혁교의학』 제4권, 353-54.

81 바빙크, 『개혁교의학』 제4권, 356.

82 바빙크, 『개혁교의학』 제4권, 355.

83 바빙크, 『개혁교의학』 제4권, 343: "개혁파 교회와 루터파 교회 외의 다른 교회들의 경우, 이런

## 2. 교회의 보편성과 유기체로서의 교회

앞서 바빙크의 비가시적 교회 이해와 교회의 보편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제는 바빙크가 가시적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와 바빙크의 가시적 교회 이해에서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 개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가시적 교회를 이해할 때, 바빙크는 그것을 제도적 기관과 유기체적 교회로 구분한다.<sup>84</sup> 그에게 있어서 가시적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지만, 또한 신자들의 어머니이며, 유기체이지만 또한 제도적 기관이며, 목적과 동시에 수단”이다.<sup>85</sup> 여기서 바빙크가 말하는 제도적 기관은 직분과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교회이며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믿음과 삶의 교제 가운데 나타난다.<sup>86</sup> 이처럼 바빙크가 가시적 교회를 제도적 기관뿐 아니라 유기체로 보는 것은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바빙크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그의 보편성은 다양성 안에서의 유기체적 일치의 형태를 취한다.

바빙크가 말하는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유기적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의 유기적 세계관이 잘 드러나는 그의 저작은 그가 1904년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총장직을 맡으면서 교수와 학생들 앞에서 했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제목의 강연이다. 이 강연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사유와 존재’, ‘존재와 생성’, ‘생성과 행동’이다. 바빙크의 유기적 세계관은 두 번째 장인 ‘존재와 생성’에서 잘 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기계론적 세계관과 역본설적 세계관을 유기적인 세계관으로 대체할 때에만 통일성과 다양성, 존재와 생성이 자기 자리

(균형 잡힌) 관계는 자주 완전히 깨어져 비가시적 교회가 가시적 교회에 회생되고 또는 가시적 교회가 비가시적 교회에 회생되었다.”

84 여기서 바빙크는 교회를 제도와 유기체로 구별하는 것이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로 구별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주 정성스럽게 설명하고 있다. 교회를 제도와 유기체로 구별하는 것은 교회에 어떻게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고,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의 구별은 가시적인 현상이 오로지 하나님만 아는 비가시적, 영적 측면을 가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바빙크, 『개혁교의학』 4권, 361 참고.

85 바빙크, 『개혁교의학』 4권, 359.

86 바빙크, 『개혁교의학』 4권, 388.



로 돌아온다.”<sup>87</sup> 여기서 알 수 있는 바빙크 유기적 세계관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세계관 아래에서 모든 피조물이 가지는 다양성은 그 자체로 인정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존재와 생성이 목적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빙크의 유기적 세계관을 교회론에 적용시켜보면, 바빙크가 말하는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진다. 바빙크에게 있어서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먼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을 가지는 보편적 교회이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머리이며,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를 맺고 성장하는 몸이다. … 그리스도는 주님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교회에 가입시킨다.”<sup>88</sup>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유기체로 존재하며, 다양한 지체들의 원자론적 총합으로 발생하지 않고 보편적 교회로 먼저 ‘존재’하며 이 보편성을 토대로 하여 ‘생성’한다. 그러므로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영적인 유익이라는 비가시적인 목적성을 따라 가시적인 제도를 세워나가는 “생성되는 교회”라고도 할 수 있다.<sup>89</sup> 에글린턴은 이 유기체적 교회가 가지는 보편교회로서의 통일성 안에서의 다양성은 헤겔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론에 근거한 것이라고 아주 탁월하게 평가했다.<sup>90</sup>

## V. 결론

본 논문은 신칼빈주의의 중추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헤르만 바빙크의 교회론 중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얻게 된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교회의 보편성은 교회의 분열이나 획일적인 일치에 대해 거부한다. 교회의 보편

87 헤르만 바빙크, 『헤르만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 김경필 역 (서울: 도서출판 다함, 2019), 138.

88 바빙크, 『개혁교의학』 4권, 440.

89 바빙크, 『개혁교의학』 4권, 388.

90 에글린턴은 바빙크의 유기적 특성이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말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양성 안에 통일성(unity-in-diversity)의 원형이시고, 피조된 세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vestiges)을 가지고 있다. Eglinton, *Trinity and Organism*, 82-83.

성이 가지는 이러한 특징은 ‘분리’와 ‘교회 연합’이라는 시대적 주제와 씨름했던 교회 중심의 교의학자 바빙크에 의해 분명히 드러났다. 둘째, 교회의 보편성은 기독교의 보편성(절대적 우주성)에 근거한다. 복음 보편성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한 새 피조물로서의 교회의 보편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셋째, 교회의 보편성은 종교개혁자 루터로부터 시작되어 후대 개혁파 신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비가시적 교회 개념에 지지를 받는다. 교회의 보편성은 시대와 민족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이며 비가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가시적 교회 개념으로 교회의 보편성을 잘 설명할 수 있다. 넷째,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보편성은 단지 비가시적인 것만은 아닌데, 교회의 보편성이 가지는 가시적 측면은 유기체로서의 교회 개념과 관련해서 매우 설득력 있게 전개된다.

이상의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바빙크의 이해를 토대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교회론적인 문제점들의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교회론적 문제점들은 매우 다양하다. 모든 교회를 도매금으로 묶어 비판할 수는 없지만, 교회 현장에서 뼈아픈 문제들이 왕왕 포착된다. 설교에서 복음의 선포가 빠지는가 하면, 성례전이 하나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전락하기도 하고, 직분이 감투로 이해되기도 한다.<sup>91</sup>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도 매우 시급하지만,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한국교회의 교회론적 문제점은 ‘교회의 보편성’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초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획일화 문제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 내에는 초대형교회를 기준하여 획일화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초대형교회의 막대한 자금력과 인적·물적 인프라를 통해서 개발된 모든 예전, 직제, 교육 프로그램이 여타 교회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모방되고 답습된다. 이는 교회의 보편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가시적 보편교회 즉 공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예전과 신조가 초대형교회에 의해서 임의로 수정되고 변형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타 교회들이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답습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분파’가 형성되어 개교회가 독특하게 향유할 수 있는 유기체적인

91 박진기, “루터의 교회론 연구와 한국교회의 개혁 방안”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2018), 22-37.

통일성 안에서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기계적 획일화만 남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회의 보편성이 훼손되면, 결과적으로는 교회는 그 영적인 생명을 잃고 화석화 된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복음이 가지는 절대적 우주성 안에서 교회의 보편성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기계적 획일화에 빠지지 않고, 교회의 보편성이 지향하는 통일성 안에서의 다양성을 추구하여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령 안에 있는 성도의 교제인 교회는 결코 획일화 될 수 없다’는 긍정적인 교회 이해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러할 때 모든 교회가 더불어 ‘유기체’라는 정체성 안에서 공존하며 상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Bavinck, Herman. "The Catholicity of Christianity and Church." ed. John Bolt. *Calvin Theological Journal* 27(1992), 220-251.
- \_\_\_\_\_. "The Future of Calvinism." trans, Gerhardus Vos.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Review*. No.17(1894), 2-24.
- Berkhof, Hendrikus. *De Katholiciteit der kerk*. Nijkerk: G. F. Callenbach, 1962.
- Brock, Cory and Sutanto, Nathaniel Gray. "Herman Bavinck's Reformed Eclecticism: On Catholicity, Consciousness, and Theological Epistemology."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70, no.3(2017), 310-332.
- Eglinton, James. *Trinity and Organism: Towards a New Reading of Herman Bavinck's Organic Motif*. New York: Bloomsbury T&T Clark, 2012.
- Fields, C. Ryan. "Reformed and Catholic? Assessing Nevin and Bavinck as Resources for Reformed Catholicity."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82, no.1(Spring 2020), 77-94.
- Harinck, George. "Calvinism Isn't the Only Truth: Herman Bavinck's Impressions of the USA." *The Sesquicentennial of Dutch Immigration: 150 Years of Ethnic Heritage: Proceedings of the 11th Bienni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Dutch American Studies*. ed, Larry J. Wagenaar and Robert P. Swierenga. Holland: The Joint Archives of Holland, Hope College (1998), 151-160
- Kamphuis, Barend. "Herman Bavinck on Catholicity." *Mid-America Journal of Theology* 24(2013), 97-104.
- Sutanto, Nathaniel Gray. "Confessional, International, and Cosmopolitan: Herman Bavinck's Neo-Calvinistic and Protestant Vision of the Catholicity of the Church."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12, no.1(2018), 22-39.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96.

글리슨, 론. 『헤르만 바빙크 평전』. 윤석인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4.

김재운. “헤르만 바빙크의 교회론.” 『장로교회와 신학』 10(2013), 145-162.

바빙크, 헤르만. 『개혁교의학』 제1권. 박태현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_\_\_\_\_. 『개혁교의학』 제3권. 박태현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_\_\_\_\_. 『개혁교의학』 제4권. 박태현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_\_\_\_\_. 『헤르만 바빙크의 기독교 세계관』. 김경필 역. 서울: 도서출판 다함, 2019.

\_\_\_\_\_. 『헤르만 바빙크의 일반은총』. 박하림 역. 서울: 다함, 2021.

박재은. “제임스 에글린턴의 *Bavinck: A Critical Biography*에 대한 비평적 고찰.” 『개혁논총』 56 (2021), 205-238.

박진기. “루터의 교회론 연구와 한국교회의 개혁 방안.”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2018.

박태현. “아브라함 카이퍼와 자유대학교.” 『신학지남』 제82권 2집 제323호 (2015), 177-200.

박태현. “헤르만 바빙크의 『기독교와 교회의 보편성』.” 『신학지남』 제84권 1집 제330호 (2017), 113-162.

유해무. “신칼빈주의 운동.” 『신학지평』 제8집(1998), 228-249.

유해무. 『헤르만 바빙크, 보편성을 추구한 신학자』. 서울: 살림, 2004.

이상웅.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와 사상 개관 1.” 『신학지남』 제80권 2집 제315호 (2013), 197-227.

칼빈, 존. 『1559년 라틴어 최종판 직역 기독교 강요 4』. 문병호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0.

**[Abstract]****A Study on Herman Bavinck's understanding of the catholicity of the Church**

Jin Gi Park

(Namseoul Church, Associate Pastor, Systematic Theology)

This article studies the concept of 'the Catholicity of the Church' presented by Herman Bavinck(1854-1921), a Reformed dogmatician who played a important role in the Neo-Calvinism movement in the 19th century. Moreover, it examines and finds a solution to the ecclesiological problems facing the Korean Church today. Herman Bavinck was born into a family which became the center of the *Afscheiding* movement in the Netherlands in 1834, and throughout his life tried to preserve that tradition. However, he did not stay only as a separatist but worked for unity of the Church with Abraham Kuyper(1837-1920) after the *Doleantie* movement in 1887. The reason Bavinck was able to fight at the forefront with such aspiration for the Church's unity was because of his belief in the Catholicity of the Church based on the Catholicity(universality) of Christianity. His understanding of this subject is revealed in depth in *The Catholicity of the Christianity and the Church and Reformed Dogmatics*. This article evaluates that Bavinck's concept of the Catholicity of the Church succeeds the Reformers' invisible church idea very well, and also evaluates that it is properly connected with the Neo-Calvinist's organic form of visible church. And as a conclusion, it examines what lessons Bavinck's understanding of the Catholicity gives to the Korean

Church. It suggests that the Korean Church pursue the true Catholicity of the Church in unity in diversity beyond the uniformity caused by uncritical imitating Mega Churches' systems and programs.

**Key Words:** Herman Bavinck, Neo-Calvinism, The Catholicity of the Christianity and the Church, Reformed Dogmatics, invisible church, organic form of visible church

